

# ‘임실산타축제’ 역대급 인파

### 전국 각지서 주말 14만여명 다녀가... 25일까지 다양한 공연·체험 등 진행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열리는 2024 임실산타축제가 역대급 인파가 몰리면서 대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막한 임실산타축제가 개막 당일 3만5000여명에 이어 22일에는 10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 전년도 11만여명을 훨씬 뛰어넘는 14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1일 첫날에는 축제 개막을 축하하듯 흰 눈이 펄펄 내리면서 치즈테마파크 일대가 겨울왕국으로 변신했다.

22일은 맑은 날씨 속에 전날 쌓인 하얀 눈에 뒤덮인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축제장에 들어오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10 일대에 차들이 대거 몰리면서 운종일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축제의 인기는 현장에서 더욱 실감났다. 잠미원 입구 터널부터 시작되는 제각각 다양한 장식들로 꾸며진 트리와 갖가지 포토존마다 축어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 길 줄이 늘어선 게 하연 랜드마크인 치즈캐슬 앞 대형트리 주변에서도 연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특설무대에서는 대표프로그램인 산타패레이드 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몰린 산타 복장을 한 참가자들의 공연 춤 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축제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전 축제보다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먹거리 존도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임실치즈가 가득 들어간 시그니처 먹거리인 임실N치즈붕어빵은 고소하고 쫄면이 가득한 맛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대형음식부스에서는 새래직죽, 다양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열리는 2024 임실산타축제가 역대급 인파가 몰리면서 대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분식, 다슬기수제비, 치즈돈까스, 짜장면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행사장 곳곳에 출몰한 참여수수, 어묵, 닭꼬치, 호떡 등 겨울 먹거리 간식 부스 등에는 축제를 즐기며 배를 풍족하게 채우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었다.

올해 첫선을 보인 대형눈썰매장은 길이 50m의 슬로프로 내려오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어 아이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1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인기 만점 스틸 넘치는 눈썰매를 즐기러 온 아이들의 긴 대기 줄로 진풍경을 보였다.

바로 옆 빙어 잡기 현장에서는 팔채로 빙어 잡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 즐비했고, 잡은 빙어를 바로 튀겨주는 빙어튀김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맛보는 이색 먹거리로 눈길을 끌었다.

군은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축

제 기간 어린이들을 겨냥한 치즈 켈링과 헬렌지 에어버누스 가족 트리 만들기 가족 케이크 만들기 등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장 곳곳에서 열리는 산타 선물 이벤트 또한 재미를 더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는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임실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전주종합경기장-전주시청-한옥마을-임실치즈테마파크(축제장)를 순회하는 노선이며,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실 민 군수는 "남은 축제 기간도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임실에서 즐거운 겨울 추억을 한가득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 등 축제 운영 전반에 각별히 주력하겠다"며 "모든 분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복지안전 119 본격 보급

### 시간·장소 구매받지 않고 위급 상황 시 손쉽게 도움 요청·신고

남원시는 23일부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을 본격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긴급구조 119 △도움 요청 △안전 신고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등 5가지 주요 기능이 제공되며,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위급 상황에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특히 '긴급구조 119' 기능은 건강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전화 연결과 동시에 비상 연락망(보호자 지인 등)에 도움 요청 문자를 자동 발송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도움 요청' 기능은 생계·의료·주거·기타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위험장소와 학대 및 자살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고 기능 △사용자 주변의 공공기관, 병원, 약국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동영상 재생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위험 및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시는 더 많은 시민이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전광판 광고와 음



면통,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물 배포는 물론, 앱 사용법을 담은 영상 설명서를 제작해 경로당 IPTV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해 어르신들의 앱 설치와 사용법을 도울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복지안전 119 앱 보급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으로 확대

순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인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도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남 하순군 충북영동군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

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시방산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 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곳곳 따뜻한 손길 이어져

남원시가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유)유정건설(대표 정미숙)은 지난 23일 보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대기)를 찾아 연말 연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정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원시민 김종곤 씨는 나이들



먹을수록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금 70만원을 기부해 3년째 꾸준히 선정을 실천하고 있다. 산내면에서는 발전협의회 최홍식 회

장이 관내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돌봄 사업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지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덕과면에서는 면 발전협의회와 (유)우리산업 대표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각 이웃 들기 성금 1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이종대 협의회장은 "우면민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고, (유)우리산업 백종선 대표도 "주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뜻깊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출신 조화익 씨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순창군은 순창 출신 조화익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풍산면 출신인 조화익 씨는 사위인 김성국 모던테크 대표도 순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순창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성국 대표가 운영하는 모던테크는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안전시설물 제조와 설치업체다. 특히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래 씨도 지난해 6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어, 가족의 꾸준한 고향 사랑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화익 씨는 "고향과 가족의 연이 닿아 있는 순창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재난취약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사업 등 실시

남원시는 겨울철 화재 및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내 전기재해 예방사업과 소방물품 보급 사업,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 또한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점검에서는 겨울철 온열장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옥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재난취약 가구의 누전차단기 노후, 전기콘센트 불량과 같은 가구 내 화재취약 요인을 파악했으며, 필요 시 누전차단기 교체와 같은 긴급 보수를 진행하여 전기 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했다.

남원시는 화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소방서와 협업하여 재난취약가구 180세대를 대상으로 한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동별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활용하여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부(廣通)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일면 5칸·일면 4칸이며, 지붕은 일면에서 볼 때 이집탈(A)과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말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일면 2칸·일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